동성고 동문 모이니 KIA 역사 보이네

〈옛 광주상고〉

지난 11일 광주 동성고(광주상고) 야구인의 밤 행사가 끝난 뒤 장채근 홍익대 감독, KIA 김기훈 등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야구인의 밤' 전설 이순철·장채근 부터 막내 김기훈 한자리

문성록-문선재 부자 동문 눈길…선후배 격려하며 '훈훈'

광주 동성고의 전설과 미래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일 광주시 리더스 웨딩홀에서 광주 동성고 야구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광주상고 유니폼을 입고 맹활약을 했던 이순철·장채근 등 '레전드'를 필두로 올 시즌 프로 마운드에 데뷔한 '막내' 김기훈까지 타이거즈 역사가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에이스' 양현종이 서울 시상식 참가로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고장혁, 한준수 등 KIA 선수들과 삼성 이원석, 두산 최주환, 롯데 김원중 등 타지에서 동성고를 대표해 뛰고 있는 이들도 반갑게 재회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동문으로 행사장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

KIA 포수 신범수와 대성초 신경호 감독, KIA 외야수 문선재와 함평 챌린저스 필드 관리를 담당하는 문성록 주임이 '부자(父子) 동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동성중·고 선수들도 유니폼 차림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야구 선배들과 신장호 교장, 김재덕 동성고 감독, 강대성 동성중 감독 등 관계자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선보여 분위기를 띄웠다.

이원석은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까 어려움을 견뎌내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최대한 참고 즐기면서 하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선배로서 후배들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늘 힘내면 좋겠다"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김원중도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서 프로에 와서 같이 뛰면 좋겠다. 학교를 빛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고 화이팅을 외쳤다.

대선배들도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재간둥이'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은 슈퍼스타 그리고 지도자, 해설위원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이순철 SBS 해설위원은 "오랜만에 행사에 왔는데 야구하는 중·고등학생이 다 모여서 좋다"며 "훌륭한 선수만 되지 말고 좋은 인격을 갖춘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지심'으로 듬직하게 타이거즈 안방을 지켰던 장채근 홍익대 감독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강조했다.

"후배들이 야구 잘해서 프로에 많이 가고 스타가 되면 학교가 발전하는 것이다"며 웃은 장 감독은 "나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되면 좋겠다. 좋은 자원이 많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야구는 강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예전보다 선수들의 몸이 커지고 파워도 세졌지만 약한 면이 많이 보인다"며 "슈퍼스타가 되려면 내면이 강해야 한다. 강한 멘탈과 체력이 있어야 프로에서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학강초 올해도 선배 산타 오셨네~

두산 최주환이 지난 11일 모교 학강초를 찾아 야구 용품 등을 전달한 뒤 은사 최태영 감독 등과 사진을 찍고 있다. 〈학강초 제공〉

두산 최주환, 야구배트·방한 장갑 등 용품 선물

두산 베어스 내야수 최주환이 모교인 광주 학강초에서 '산타'가 됐다.

최주환은 지난 11일 자신이 야구 꿈을 키웠던 학강초를 찾았다. 모처럼 만나는 후배들을 위해 최주환은 야구배트와 방한 장갑 등을 잔뜩 챙겨들고 걸음을 했다.

후배들은 '산타'가 되어 학교를 찾은 선배 최주환의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며 환영했다. 또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최주환을 위해 'FA 대박 나세요'라는 현수막도 준비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나눔을 베푼 최주환은 오히려 후배들에게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최주환은 "지난해 방한 장갑을 선물했었다. 연습할 때 사용하라고 약소하게 준비했었는데 후배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보고 올 시즌 다른 선물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후배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분 좋다. 타자 출신이라 배트를 선택했다. 이 배트로 내년에 잘해서 후배들이 전국대회 우승하면 좋겠다. 홈런도 많이 치면 좋겠다"고 웃었다.

최주환의 은사인 최태영 학강초 감독은 "주환이가 모교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뿌리인데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며 "후배들의 응원에 힘내서 내년 시즌 좋은 활약하고 FA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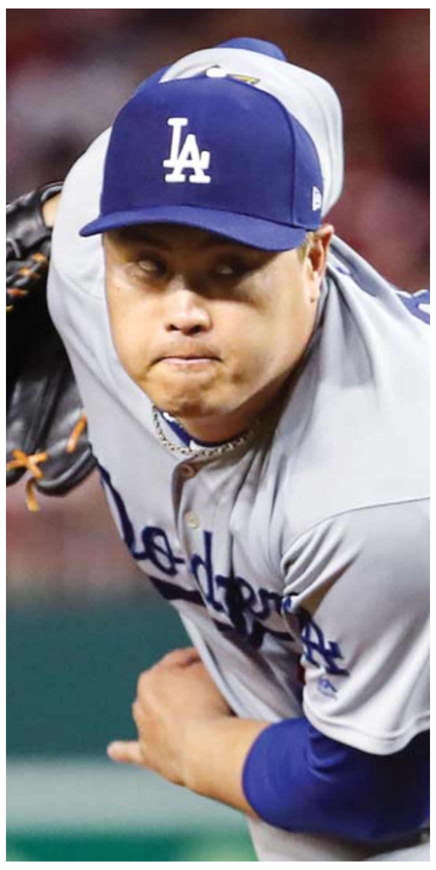
최주환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에는 '동성고 야구인의 밤'을 찾아 동성중·고 후배들도 만났다.

최주환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전보다 후배들이 프로 지명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쉽다"며 "많이 챙겨도 좋으니까 후배들이 프로에 많이 많이 오면 좋겠다. 내년에 고3 올라가는 후배들이 절실하게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물론 최주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시즌 초반 옆구리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낸 만큼 '건강'을 우선으로 착실하게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최주환은 "지난 겨울에 준비 잘했고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상을 당한 것 같고 아쉽다.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지금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다. 겨울잠은 자고 있지 않다(웃음). 몸 잘 만들고 준비해서 내년 시즌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만 남았다

FA 대어 렌던 2억4500달러 대박

미국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시장 야수 최대어인 앤서니 렌던(29)도 잭팟을 터뜨렸다.

MLB닷컴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12일(한국시간) 렌던이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7년간 2억4500만 달러, 연평균 3500만 달러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렌던은 메이저리그 역대 FA 계약 총액 최고액 순위에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와 함께 공동 6위, 연평균 최고액 순위 공동 2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FA 총액 3억달러를 넘겼던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필리스)보다 연평균 수입은 약 1000만 달러가 많다.

렌던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워싱턴에서 7시즌 916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0.290, 136홈런을 기록했다.

2019시즌엔 타율 0.319, 34홈런, 126타점을 기록하며 워싱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MLB닷컴은 "에인절스는 FA시장에서 퇴장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류현진, 매디슨 범가너 등 선발 투수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렌던의 대형 계약으로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입지는 더욱더 단단해질 전망이다.

보라스는 10일 스트라스버그(7년 2억4500만 달러), 11일 게릿 콜(뉴욕 양키스·9년 3억2400만 달러)에게 천문학적인 수입을 안겼고, 12일엔 렌던의 대형 계약을 이끌었다.

보라스는 3일 동안 8억1400만 달러(약 9665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수수료(5%)로만 40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3억원을 챙겼다. 이제 보라스는 류현진의 FA 계약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솔기 높이가 낳은 ML '홈런 폭증'

수작업에 높이 제각각 비거리 영향…올 시즌 전년비 11% 증가

일관성 없는 야구공의 솔기 높이와 어퍼스윙을 앞세운 타자들의 발사 각도가 미국 프로야구(MLB)의 홈런 폭증을 낳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물리학자, 통계학자, 기계공학자, 수학자 등 4명의 교수로 이뤄진 연구진은 12일(한국시간) MLB 사무국의 의뢰로 연구한 2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선 지난해보다 11%나 증가한 홈런 6776개가 터졌다. 역대 최고 수치다.

투수들은 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이 조작됐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MLB 사무국이 공인구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외부 연구진에 조사를 맡겼다.

AP통신, ESPN 등에 따르면, 연구진은 올해 사용된 공인구 240개, 작년 사용구 240개,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된 공인구, 그리고 2019년 포스트시즌 공인구 240개 등 1020개를 분석해 차이를 비교했다.

또 MLB 사무국이 제공하는 홈런 타구 추적 데이터인 스탯캐스트도 활용해 비거리 등을 따졌다.

연구진은 이 결과 홈런 폭증의 원인을 항력 계수에 영향을 받은 타구 비거리 증가(60%)와 타자들의 발사각도(40%)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공의 솔기 높이가 비거리 증가의 35%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더 높이 더 멀리 타구를 보내려는 발사 각도는 진화하는 타격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코스타리카 롤링스사의 공장에서 일꾼들은 직접 손으로 가죽에 실밥을 꿰어 공을 만든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만들기에 솔기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진의 생각이다.

연구진의 분석한 공 중 솔기 높이가 0.025인치 미만의 공이 4개, 0.0425인치 이상의 공은 2개나 있었다. 평균은 0.0305인치로 2013~2015년 사용구 평균 높이 0.035인치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솔기의 높이가 낮을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고 밝혔다.

4명의 과학자는 보고서 말미에 공인구와 홈런의 상관관계와 관련한 권고안을 삽입했다.

눈부심을 방지하고, 미끄러움을 줄이고자 공에 바르는 특수 진흙(러빙 머드)이 비거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필 것, 공을 보관할 때 가변성을 줄이고자 30개 구장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인 휴미더를 설치할 것, 또 각 구장에 대기추적시스템을 도입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업그레이드' K리그 내년 공인구 공개

K리그 2020시즌에 사용할 새로운 공식 사용구가 공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2일 "2020시즌 공식 사용구로 아디다스의 '츠바사 프로(TSUBASA PRO)'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아디다스의 공인구를 사용하고 있는 K리그는 내년 시즌에도 아디다스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선보인 '츠바사 프로'는 일관된 성능과 수분 흡수를 막아주는 열전대 기술이 적용된 6개의 모노 패널이 특징이다.

또한 2019시즌 공인구인 '커넥스트19(CONEXT19)'와 마찬가지로 하이 화이트 폴리우레탄(High White PU) 소재를 적용해 공의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2020시즌 K리그에 사용되는 츠바사 프로는 2020 도쿄 올림픽 축구 종목, 2020 AFC 챔피언스리그의 공식 공인구이기도 하다. FIFA(국제축구연맹)를 포함해 MLS(미국메이저리그사커)를 제외한 아디다스에서 후원하는 모든 프로리그에서 사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